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2월 11일(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연구원 소식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송년회 안내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사일난一事一難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23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2023년이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시대를 노래하는 음유시인 박남준 작가와 함께 2023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본인의 책을 서로 나누는 도서나눔행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장하고 계신 도서를 다른 회원에게 기증하고 다른 회원의 추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행사이오니 많은 참여드립니다.

- 시간 : 2023.12.16(토) 17시 - 20시

- 장소 : 장가네왕족발 2층 (전주 완산구 동문길24 / 063-282-7476)

■ DMZ 걷기, 다섯 번째 이야기

경기평화누리길 제3구간 - 1

유영봉(연구원 모악회 회장 / 前 전주대학교 교수)

날씨가 확 풀렸다. 녹녹해진 세상이 솟제 부연했다. 전형적인 봄날이라, 바람이 때때로 옷襟을 파고들었다.

애기봉 앞에 도착하자, 뒤따라 관광버스 두 대가 더 들어왔다. 오늘의 DMZ 걷기 제3구간 일정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유엔피스코 회원들이다. 도합 160여 명의 인원이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짧은 출정식을 마치고, 울긋불긋한 대열이 구불구불 뺨어나갔다. 큰길을 벗어나자마자, 나이가 450년 되었다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손이란 손은 모두 들고 회원들을 전송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마을 사람 몇몇이 하던 일을 멈추고 지나가는 우리 일행을 지켜보았다. 삼삼오오 짝을 이룬 한 줄기 행렬이 마을을 뚫고, 언덕을 넘었다. 농로를 지났다. 발끝에서 먼지가 풀썩풀썩 일었고, 낙엽이 부서졌다. 유달리 건조하던 겨울의 자취였다. 장어 양식장 한 곳을 지나자, 이내 가금리의 농가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무엇을 태우는가? 집마다 연기가 일었고, 매캐한 냄새가 허공에 떠돌았다. 탁 트인 들판 앞쪽으로 조강이 얼굴을 내밀었다.



고려 중기의 문인 이규보는 1219년 7월에 조강을 건넌 다음, 그 감회를 <조강부祖江賦>에 담았다. 먼저 그 서문이다.

“정우貞祐 7년 4월에 내가 좌보궐左補闕에서 탄핵당해 계양桂陽의 원님으로 임무를 받아 부임하는 길에 조강을 건너려고 하였다. 그런데 강물이 본디 빠르고 거센 데다, 마침 폭풍을 만나 무척 고생한 뒤 건넌기에 부賦를 지어 슬퍼하다가, 나중에 마음을 스스로 누그러뜨렸다.”

이 작품은 장편의 형식인데, 여기에서는 앞부분만 보도록 한다. 당시 거센 물살을 헤치고 조강을 건너가는 이규보의 조마조마한 심정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넓디넓은 강물이
경수涇水처럼 흐린데
시커먼 빛 넘실넘실
굽어보기도 무서워라
여울져 솟구치는 형세
어찌 구당瞿塘에 비할쏜가
달리는 뭇 냇물 모았으니
솔 안의 물 들끓는 듯
이무기와 악어가 침을 흘리고
독룡이 숨어 엿보는 걸 어찌 알아채랴
물살을 거슬러 나아가려 하지만
배가 가다가 그대로 멎는구나
저녁이 아닌데 어두워지고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치고
눈 같은 물결이 광광 돌에 부딪는 모양
진秦과 진晉이 팽아彭衙에서 싸우는 듯
저 사공은 집채 같은 물결에 익숙해도
빙빙 도는 물살을 무서워하네
온 길 잠깐 돌아보니
광광 출렁이는 서슬에 멀리 나온 듯
이 몸은 지금 쫓겨나는 길
이 험한 강물 만났구나”

조강에는 물살이 출렁거렸다. 그리고 강물을 따라 철책이 곧장 뻗어나갔다. 이곳은 사진 촬영 금지 구역이다. 철책은 이중으로 설계되었다. 그 한가운데에 순찰로로 쓰는 듯한 포장도로가 누워있었다. 강 쪽의 철책에는 손가락 두 마디만 한 크기의 감지 장치가 규칙적으로 달라붙었으니, 매우 조밀한 배치이다.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